

김길두·박동철·김인봉 대한체육회 체육상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 장려상

전남도 체육인과 경기팀이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한다.

10일 전남도체육회(사무처장 박대영)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불림협회 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54)가 공로부문과 심판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또한 김인봉 전남 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이 공로부문과 경기부에서 각각 장려상을 받게 됐다.

보성 출신 김길두 협회장은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8월 세계불림선수권대회에서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일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검도선수 출신인 박동철 교수는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왔고, 김인봉 부회장은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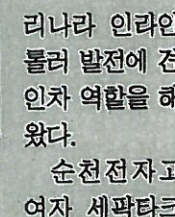
김길두 회장



박동철 교수



김인봉 부회장



리나라 인라인롤러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은 창단 3년만에 4개 전국대회를 석권하는 등 여고부 세팍타크로 경기력을 향상시켰다.

한편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송기동기자 song@kwangju.co.kr

김길두 불림회장·박동철 교수 대한체육회 체육상

롤러 김인봉·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 각각 공로와 경기 부문 장려상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



박동철 목포대 교수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은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고 10일 도체육회는 밝혔다.

이어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 받게 됐다.

이번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통하고 있다.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은 대한불림협회 감사(2009~2012년)와 한국실업불림연맹 회장(2003~2007년) 전남도불림협회 회장 등을 역임했다. 현재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로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불림부가 없는 등 한국 불림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면서 “앞으로 초등학교 불림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또한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문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동철 교수는 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체페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청) 등을 육성해냈다.

이어 2009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등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로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장려상을 수상한 김인봉 부회장도 한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데 힘입어 공로부문에서 수상했다.

여수시청 롤러부 감독을 역임(1986~2010)한 김인봉 부회장은 198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하면서 전남에 국제구격 인라인롤러장 2개(여수, 나주)를 개장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다.

순천전자고(교장 문제운)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11년 12월 17일 여고부 세팍타크로팀을 창단, 첫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전국대회에 출전해 전 종목 전관왕을 차지하는 등 우리나라 여고부의 새로운 세팍타크로 명문으로 부상시켰다.

한편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이정욱기자

김길두 불림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 '우수상'...단체 화합 이끌어

검도 박동철교수도 '심판' 부문 우수상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하는 가장 권위 있는 상이다.

10일 대한체육회 및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은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됐다.

지난해 대한불림협회장에 선출된 김 회장은 대한불림협회 감사(2009~2012년), 한국실업불림연맹 회장(2003~2007년)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전남도불림협회장(2001년~)과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 다이아몬드 호텔 대표이사이기도 하다.

김 회장은 대한불림협회장에 선임된 지 1년여만에 화합과 일심동체의

협화로 거듭나게 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서 개최된 세계불림선수권대회서 금·은·동 5개를 획득, 종합우승을 차지하는데 견인차 역할을 했다.

김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며 “초등학교 불림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말했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문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는 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서 한국 최초 세계체페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청) 등을 육성해냈다. 또 2009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등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로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김길두



박동철

특히, 박 교수는 국가대표 출신, 세계대회 임상 등 엘리트코스를 걸어온 데 대한 자부심을 바탕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1989년부터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박 교수는, 일본국 제무도대학 객원교수(1999~2000년)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대한무도학회 부회장 ▲한국체육학회 상임이사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전남도검도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체육공로를 인정받아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했다.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개최된다.

한편,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받게 됐다.

/고광민 기자

광주매일

“전남 체육인들 상복 터졌네”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이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전남 체육인들의 수상이 이어졌다.

전남도체육회는 10일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박동철 목포대 교수·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 등이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각 분야에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인 김길두 회장은 불림계를 이끌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공로부문 우수상

을 받았다. 심판부문 우수상을 받은 박동철 교수는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김인봉 부회장은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전남에 국제구격 인라인롤러장 2개를 개장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에서 전 종목 우승하는 기염을 토해 경기 부문 장려상을 받았다.

/이정민기자 genius@kdaily.com

남도일보

김길두 불림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영광

보성 출신...세계불림선수권 한국 우승에 기여

전남 보성군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림협회장(65·사진)과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받게 됐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통하고 있다.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기도 한 김길두 회장은 지역 출신인사로는 드

물게 2013년 대한불림협회장에 선출되는 등 불림계에서는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김길두 회장은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2013년 8월 세계불림선수권대회(미국 개최)에 참가해 세계 불림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주국’ 미국(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보다 동메달 1개가 더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 세계 불림계를 놀라게 했다.

김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불림부가 없는 등 한국 불림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며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문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는 국가대표 출신,

세계대회 임상 등 엘리트코스를 걸어온 데 대한 자부심에 바탕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포청천 심판’으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김인봉 부회장도 한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데 힘입어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순천전자고(교장 문제운)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 영광을 안았다.

/신광호 기자 sgh@namdodaily.com

보성 출신 김길두 볼링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영광

공로부문 우수상 수상... 화합단체 · 우수성적 거양 기여 평가
검도 박동철 · 롤러 김인봉 ·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도 기쁨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받게 됐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통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은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기도 한 김길두 회장은 지역 출신인사로는 드물게 2013년 대한볼링협회장에 선출되는 등 볼링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볼링협회 감사(2009 ~ 2012년),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2003 ~ 2007년), 전라남도볼링협회 회장(2001년 ~)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온화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희생정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길두 회장은 대한볼링협회장에 선임된 지 1년여만에 화합과 일심동체의 협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길두 회장은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013년 8월 세계볼링선수권대회(미국 개최)에 참가하여 세계 볼링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주국' 미국(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보다 동메달 1개가 더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 세계 볼링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길두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볼링부가 없는 등 한국 볼링 발전의 걸림돌

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볼링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분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동철 교수는 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제패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청) 등을 육성해냈다.

김인봉 부회장도 한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데 힘입어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여수시청 롤러부 감독을 역임(1986 ~ 2010. 6)한 김인봉 부회장은 198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하였으며, 전남에 국제규격 인라인롤러장 2개(여수, 나주)를 개장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

김길두 볼링협회장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

김인봉 부회장



했었다.

또한 권다솔, 정세영 등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시켰으며, 대한인라인롤러연맹 경기이사, 상벌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며 연맹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한 몫을 했다.

순천전자고(교장 문제윤)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11년 12월 17일 여고부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하여 첫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전 종목 전관왕을 차지하였고, 청소년 대표선수 3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여고부의 새로운 세팍타크로 명문으로 부상하였다.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 대한체육회 체육상 수상

창단 3년 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을 달성한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사진)이 제60회 대한민국체육회 체육상을 수상한다. 또 김길두 대한볼링협회 등 4명도 올해 체육상에 선정됐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이 제60회 대한민국체육회 체육상 경기부문 장려상에 선정됐다.

순천전자고는 2011년 12월 17일 여고부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해 첫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전국대회에 출전해 전 종목 전관왕을 차지하고 청소년 대표선수 3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여고부의 새로운 명문으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순천전자고는 특성화고등학교에 걸맞게 2014년 2월에 졸업하는 선수 3명을 실업팀에 입단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또 김길두(65) 대한볼링협회장(보성군체육회 상임체육회)이 공로부문 우수상에, 박동철(54) 목포대 교수는 심판부분 우수상에 선정됐다.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은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이들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28일 오후 서울 올림픽파크텔 1층 올림픽아홀에서 열린다.

최동환 기자 dhchoi@jinbo.com

남도투데이

보성 출신 김길두 볼링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영광

공로부문 우수상 수상... 화합단체 · 우수성적 거양 기여 평가
검도 박동철 · 롤러 김인봉 ·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도 기쁨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분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인봉 전남롤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받게 됐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통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볼링협회장은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기도 한 김길두 회장은 지역 출신인사로는 드물게 2013년 대한볼링협회장에 선출되는 등 볼링계에서는 입지전적인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볼링협회 감사(2009 ~ 2012년), 한국실업볼링연맹 회장(2003 ~ 2007년), 전라남도볼링협회 회장(2001년 ~)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온화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희생정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길두 회장은 대한볼링협회장에 선임된 지 1년여만에 화합과 일심동체의 협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길두 회장은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013년 8월

세계볼링선수권대회(미국 개최)에 참가하여 세계 볼링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중주국' 미국(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보다 동메달 1개가 더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 세계 볼링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길두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볼링부가 없는 등 한국 볼링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볼링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분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동철 교수는 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제패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청) 등을 육성해냈다.

또한 2009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등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로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특히 박 교수는 국가대표 출신, 세계대회 입상 등 엘리트코스를 걸어온 데 대한 자부심에 바탕한 냉정한 객관적인 '포청천 심판'으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교수는 1989년부터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국제무도대학 객원교수, 현재 대한무도학회 부회

장, 한국체육철학회 상임이사,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전남도검도회 수석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인봉 부회장도 한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데 힘입어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여수시청 롤러부 감독을 역임(1986 ~ 2010. 6)한 김인봉 부회장은 198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하였으며, 전남에 국제규격 인라인롤러장 2개(여수, 나주)를 개장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했었다.

또한 권다솔, 정세영 등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시켰으며, 대한인라인롤러연맹 경기이사, 상벌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며 연맹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한 몫을 했다.

순천전자고(교장 문제윤)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 영광을 안았다.

지난 2011년 12월 17일 여고부 세팍타크로팀을 창단하여 첫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전국대회에 출전하여 전 종목 전관왕을 차지하였고, 청소년 대표선수 3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여고부의 새로운 세팍타크로 명문으로 부상하였다.

한편,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픽아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김정환 기자

광남일보

전남체육계 '대한체육상' 수상 봇물

김길두 불령협회장 공로부문 우수상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 우수심판상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 등도 영예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령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에서 공로부문과 심판부

분 우수상을 받는다. 이와 함께 김인봉 전남불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문

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한다. 10일 전남도체육회에 따르면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상이다.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김길두 회장은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과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을 겸임하고 있다.

지역 출신 인사로는 드물게 지난해 대한불령협회장에 선출되는 등 불령계에서는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그는 앞서 대한불령협회 감사(2009~2012)와 한국실업불령연맹 회장(2003~2007)을 역임하고 2001

년부터 전남도불령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온화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회생정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 회장은 대한불령협회장에 선임된지 1년여만에 화합과 일심동체의 협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특히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해 8월 미국에서 열린 세계불령선수권대회에 참가, 세계 불령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주국' 미국(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보다 동메달 1개를 더 따내고 종합우승을 차지, 세계 불령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길두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불령부가 없는 등 한국 불령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불령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문 우수상



김길두 회장



박동철 교수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 교수는 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 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 제패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정) 등을 육성해냈다.

또 2009년 제14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 여자부 감독을 맡아 단체 준우승의 성적을 거두는 등 헌신적이고 창의적인 지도로 우수선수 발굴과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해왔다.

국가대표 출신인 박 교수는 세계 대회 입상 등 엘리트코스를 걸어온 데 대한 자부심으로 냉정하고 객관적인 '심판'으로서 명성이 자자하다. 1989년부터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국제무도대학 객원교수를 지냈다.

현재 대한무도학회 부회장과 한

국체육철학회 상임이사,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전남도검도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다.

김인봉 부회장은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장려상을 수상한다.

1986년부터 2010년까지 여주시청 롤러부 감독을 역임한 김인봉 부회장은 1987년 아시아선수권대회와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여수와 나주에 국제 규격을 갖춘 인라인롤러장을 개장시키는데 선도적 역할을 했다.

그는 권다솔, 정세영 등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시켰으며, 대한인라인롤러연맹 경기이사,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등으로 활동하며 연맹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해왔다.

순천전자고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지난 2011년 창단 첫 해 준우승을 시작으로 2013년에는 4개 전국 대회에 출전해 전 종목 전관왕을 차지했고, 청소년 국가대표 3명을 배출하는 등 우리나라 여교부의 새로운 세팍타크로 명문으로 부상했다.

한편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김경석 기자 pius97@

광주타임즈

김길두 불령회장, 대한체육회 체육상 '영광'

공로부문 우수상 수상 ... 화합단체 · 우수성적 거양 기여 평가
검도 박동철 · 롤러 김인봉 · 순천전자고 세팍타크로팀도 '기쁨'

전남 출신의 김길두 대한불령협회장(65)과 박동철 목포대학교 교수(54)가 각각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공로부문과 심판부에서 우수상을 차지했다.

김인봉 전남불러경기연맹 부회장과 순천전자고등학교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공로부문과 경기부문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게 됐다.

대한체육회 체육상은 1963년 제정된 이래 국민체육 진흥에 공이 큰 개인이나 단체에 시상되는 체육계에서는 가장 권위있는 상으로 통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및 전라남도체육회에 따르면, 김길두 대한불령연맹회장은 최근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심사에서 공로부문 우수상에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이아몬드호텔 대표이사, 보성군체육회 상임부회장이기도 한 김길두 회장은 지역 출신인사로는 드물게 2013년 대한불령협회장에 선출되는 등 불령계에서는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불령협회 감사(2009~2012년), 한국실업불령연맹 회장(2003~2007년), 전라남도불령협회 회장(2001년~)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온화한 성격으로 타인을 배려하는

회생정신이 탁월한 것으로 평가받는 김길두 회장은 대한불령협회장에 선임된지 1년여만에 화합과 일심동체의 협회로 거듭나게 하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찬사를 받고 있다.

특히 김길두 회장은 우수선수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지난 1013년 8월 세계 불령선수권대회(미국 개최)에 참가하여 세계 불령 인구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종주국' 미국(금메달 5개, 은메달 4개, 동메달 4개)보다 동메달 1개가 더 많은 종합우승을 차지, 세계 불령계를 깜짝 놀라게 했다.

김길두 회장은 "큰 상을 받게 돼 개인적으로 더없이 기쁘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등학교 불령부가 없는 등 한국 불령 발전의 걸림돌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초등학교 불령부 창단을 통한 꿈나무 발굴 육성에 온 정열을 쏟아내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박동철 교수의 심판부문 우수상 역시 높게 평가받고 있다.

박동철 교수는 검도인 출신으로 지난 1982년 브라질에서 개최된 제5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 국가대표로 출전해 단체3위의 성적을 올렸으며, 2008년 제13회 세계검도선수권대회에서 우리나라 최초 세계제패 주역이었던 김완수(무안군정) 등을 육성해냈다.



김길두 대한불령협회장



박동철 목포대 교수



김인봉 전남불러경기 연맹 부회장

특히 박 교수는 국가대표 출신, 세계 대회 입상 등 엘리트코스를 걸어온데 대한 자부심에 바탕한 냉정하고 객관적인 '포청천 심판'으로서의 명성이 자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박 교수는 1989년부터 목포대 체육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 2000년까지 일본국제무도대학 객원교수, 현재 대한무도학회 부회장, 한국체육철학회 상임이사, 대한검도회 상임이사, 전남도검도회 수석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그동안 문화체육부장관상과 체육훈장 기린장을 수상한 바 있다.

김인봉 부회장은 한 평생을 한국 인라인롤러 발전에 커다란 견인차 역할을 한데 힘입어 공로부문 장려상을 수상했다.

여주시청 롤러부 감독을 역임(1986~2010. 6)한 김인봉 부회장은 1987년

아시아선수권대회 및 2008년 세계선수권대회 감독으로 활동했으며 전남에 국제규격 인라인롤러장 2개(여수, 나주)를 개장시키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다해왔다.

또한 권다솔, 정세영 등 많은 국가대표선수들을 배출시켰으며, 대한인라인롤러연맹 경기이사, 상설위원회 부위원장 등 주요 요직에서 활동하며 연맹의 원활한 운영에 크게 한 몫을 했다.

순천전자고(교장 문제윤) 여자 세팍타크로팀도 창단 3년만에 전국대회 그랜드슬램 등극의 영광을 안고 경기부문 장려상 영광을 안았다.

한편, 제60회 대한체육회 체육상 시상식은 오는 2월 2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있을 예정이다.

/정재춘 기자